

##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강 위 수 < 농업박물관 관장 · 본회 전문위원 >



한겨울 어느날 추위를 몰고 휘몰아치던 삭풍이 잠들고 유난히 적막감을 자아내던 긴 겨울밤을 지낸 다음날의 아침 정경을 잊을 수 없다.

들창을 열고 내다본 뒤울 안은 세상이 온통 뒤바뀐 것 같은 별세계였다. 뒤울안 토담 밑에는 크고 작은 독과 향아리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은 장독대가 있었다. 밤새 내린 함박눈에 덮여 백색의 유연한 굴곡을 이룬 장독대는 너무도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장독대에는 함박눈의 추억만이 있지 않다. 봄이면 장독대 돌 틈에 뿌리를 내린 민들레가 철 이른 꽃망울을 내밀고, 쓰르라미 소리와 맨드라미 꽃이 어울어지던 한여름을 지내고, 장독 위 곳곳에 빨알간 고추를 널어 말리는 가을철로 접어들면 고추 잠자리가 해바라기를 하며 쉬어가는 곳도 그 곳이다.

장독대, 삼사십대 이상 연령층의 우리나라 사람치고 그 곳에 얽힌 추억을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

은 드물 것이다.

장을 담은 갖가지 용기를 한 데 모아 두는 곳이 장독대다. 우리 조상은 장독대를 소중히 여겨 특별한 애정과 정성으로 그곳을 관리했다. 대개 부엌과 가까운 뒤뜰 높직한 위치에 돌로 단을 쌓아 만들어진 그 곳에 용도에 따른 여러 종류의 용기들을 크기별로 균형있게 배열하는데, 집안에서 가장 통풍이 잘되고 양지바른 곳에 자리를 잡는다.

우리의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장독대의 터가 좋고 잘 정리되어 있어야 집안이 번성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항상 윤이 나게 장독을 닦고 그 주변에 화초를 가꾸었으며, 벌레나 부정한 것이 범접을 못하게 정갈히 갈무리했다. 시집 보낼 딸이 있는 집에는 매 파나 신랑집의 부모가 와서 먼저 장독대를 돌아보고 그 집 규모와 사람 됨됨이를 판단 한 후에야 혼사를 성사시킬 정도였다.



우리에게 장독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깊다.

새벽마다 정안수를 떠 놓고 집안의 안녕과 복을 비는 곳도 그곳이고, 고사를 지내거나 민속신앙의 상징물인 터주가리를 만들어 놓는 곳도 장독대 주변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장류나 김치 같은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어 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품을 조리 하거나 갈무리 방법은 건조시키지 않으면 굵거나 삶고 튀기는 열처리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식품이라 할 수 있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젓갈류 등의

전통식품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킨다. 그래서 식품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가장 독특하고 뛰어난 식품이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식품을 담아서 발효시키고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그릇이 바로 독이나 항아리 같은 옹기인 것이다.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것은 식품 저장능력이 우수한 옹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음식 맛은 장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장 맛은 그 집 음식 맛의 기본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장을 담글 때는 세심한 배려와 정을 쏟는다. 가령 장을 담을 독으로는 오뉴월에 만든 독은 사지 않는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옹기가마에서 아무리 고온으로 구워내도 질이 떨어지는 쉰 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의 판별방법은 색깔과 무게, 두드려 보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장을 담그면 소금적이 하얗게 겉으로 배어 나오는 것이 좋은 독으로 이런 현상을 독이 숨을 쉰다고 한다. 이것은 자연이 지니는 오묘함으로 맛있게 곱삭혀서 전통의 맛을 창출해 내는 지혜가 아니겠는가...

흙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모두의 고향이다. 우리들의 고향 집 뒤뜰 장독대에 놓여지던 옹기는 바로 흙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흙으로 빚어 만든 전통문화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자기의 역사는 5, 6천년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인류가 불을 이용할 줄 알게 되고 가장 먼저 만들어낸 문명의 이기가 흙으로 만든 그릇인 도자기라고 할 수 있다.

아득한 옛날에 우리 조상이 만들어 쓴 그릇은 찰흙을 구워서 만든 토기류이다. 그 후 토기에 잿물을 입혀 옹기그릇이 만들어 지고, 이어서 청자 백자 등의 발전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토기류인 질그릇이나 옹기는 수천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맥이 끊기지 않고 아직도 생활옹기로 현존하는 것이다.

옹기로 대표되는 장독과 항아리는 흙의 질감과 완만한 곡선, 지극히 평

범한 생김새로 해서 여유스럽고 정이 간다. 우리 옹기의 특징은 크기와 생김새가 한가지로 규격화되지 않았다. 지방마다 모양이 다르고, 쓰임새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각각이다. 또한 그것을 만드는 옹기장이의 솜씨와 기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조상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질그릇과 오지그릇에는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품성과 순박함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러한 옹기문화도 개화와 현대화의 물결을 탄 외래문물에 밀려서 훼손되고 파괴되어 그 실체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일제 초기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도자기 가마는 3천여개나 되었다. 그러나 개화 이후 계속 그 수가 줄어들고, 옹기가마의 불이 사그러져 가다가 근래에는 그 명맥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가 격감되었다.

그나마 몇 개 남지 않은 가마도 우리 선인들이 사용하던 전래방식이 사라지고 있다. 나무 대신 석유나 가스를 때서 도자기를 굽고, 잿물 대신 납성분의 광명단 등 화학약품을 유약으로 사용해 옹기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일본의 도자기 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규슈지방'의 '온다야끼'라는 그 마을에서는 전래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생산해오고 있어서 관심이 갔다. '에도 시대'부터 열 가구가 대물림으로 도자기 생산을 하고 있다는 그곳에서는 태토로 쓸 점토를 잘게 부수는 작업도 물레방아를 이용하고, 도자기의 성형을 수작업으로 할 뿐 아니라 연료도 나무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3백년 역사를 지닌 '온다야끼'의 도자기는 일본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문 생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곳 도공의 소득은 장인인데도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많지 않은데에 나는 의아했다. 우리나라 증류가정의 소득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물레방아 대신 모터를 돌리고 나무 대신 석유를 사용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도자기를 더 만들어서 소득을 높힐 수도 있을 터인데, 전

통을 고수하려는 그들의 장인정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본의 도시 근교나 농촌 어디를 가도 우리의 장승 비슷한 목물이나 석조물, 터주까리와 흡사한 토석신앙의 상징물을 흔히 볼 수 있고, 그들의 전통가옥인 초가 한 두채는 발견할 수 있다. 지붕의 경사도가 심하고 갈대와 같은 풀로 두껍게 이엉을 해 이은 일본의 초가는 벗집을 사용하는 우리의 것보다 작업이나 관리면에서 비용도 더 들고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그들은 초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 특히 옹기문화가 작금에 이르러 소멸의 위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전통 문화, 우리 것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모두의 정신자세에 있지 않을까….

장독과 항아리 등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옹기문화가 개화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걸어오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석유화학의 부산물로 개발된 합성수지 제품이 쏟아져 나온 이후부터다. 우리의 옹기를 대신한 합성수지 제품은 값이 싸고 가볍다는 편이성 때문에 삼시간에 옹기의 역할을 대신해 갔다.

특히 우리의 가옥에서 장독대가 헐려지고 옹기의 폐기가 가속화된 계기가 된 것은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이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부터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새마을 행진가를 앞세우고 시작된 초기 새마을운동은 초가지붕을 벗겨내고 토담을 헐어내는 운동이었다. 4천년 이어 내려온 가난과 침체를 이 땅에서 몰아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착수된 새마을운동의 첫번째 타격 목표는 가난의 상징으로 각인된 구시대의 생활 환경이었다. 초가지붕이 벗겨져서 원색의 슬레이트가 올라 앉고, 토담 울타리가 헐려져서 마을 안길이 넓혀졌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버티고 섰던 장승이 뽑히고, 서낭당과 당집이 헐려 나갔다.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개

조로 잘사는 새마을을 이루자는 새마을운동이 그 명분과는 달리 눈에 띄는 구시대의 사물 모두를 타도대상으로 하는 변형된 국민운동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환경개선을 앞세운 새마을운동은 80년대 초까지 전국의 모든 가옥에서 벗짚이엉을 걷어내고 흰색칠을 한 슬레이트 지붕의 유니폼으로 갈아 입히는 눈부신 성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가 잘살기 위한 정신개조를 명분으로 수행한 새마을운동은 4천년 가난의 상징인 초가만 결단낸 것이 아니라, 수천년 대물린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누를 초래한다. 새마을운동 착수 후 10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우리의 모든 초가는 슬레이트 지붕의 시멘트집으로 개조되는 실적을 올렸지만, 한번 파괴된 문화유산은 십년 아니라 백년이 가도 복원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초가는 민속촌을 찾아가야 겨우 찾아 볼 수 있을 만큼이 땅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민속촌에 불거리로 만들어 놓은 모조품 초가에서는 우리 조상의 숨결이 담긴 초가 원형의 감흥을 느낄 수 없다.

벚집과 나무 흙으로 지어진 전래가옥이 시멘트 집으로 바뀌어지자, 옛 집에서 사용하던 손때 묻은 가재도구와 생활용기도 새집에 걸맞는 새것으로 바뀌지고 새로 나오는 가전제품도 필요해진다.

농촌에서는 집을 뜯어고치고 TV수상기, 냉장고, 세탁기를 들여놓기 위해 빔을 지게 되고, 농사만 해가지고는 부지할 수 없어 도시로 떠나는 이 농현상이 일어난다. 농촌의 위축은 상대적으로 도시의 팽창을 유도했고, 상공업과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물질면에서의 생활향상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문화결핍에서 오는 그들이 질게 깔리기 시작한다.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화와의 불균형이 갈등과 부조리의 사회적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70년대 새마을운동 초기단계에서 시작된 주택개량이, 경제력이 향상된 80년대, 90년대에 와서는 본격적인 주택구조개선으로 발전된다. 한옥의 골격을 유지해 온 단독주택은 서양식이 절충된 국적 없는 가옥으로 고쳐

지어졌고, 도시나 농촌없이 여기저기 아파트 빌딩이 우후죽순 처럼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 와중에서 다시 수난을 당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던 전통 생활용구이다.

개량용기에 자리를 비켜주고 빈 자리가 늘던 장독대가 헐려 나가고, 아파트 입주 가정에서는 김치독, 된장, 고추장 항아리마저 길거리로 내던져진다.

오로지 잘 살아 보자는 목표만을 향해 질주해 온 고도성장 후유증의 또 하나는 우리의 주변환경, 자연의 훼손과 파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에 의해 물과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초가 뒤울 안의 황토색 토담을 낀 양지쪽에 자리를 잡은 우리의 장독대, 그 위에 키 순대로 옹기종기 모여앉은 큰독, 작은독, 오지 항아리….

우리 선인들의 숨결이 뻗 모든 그것들은 유연한 굴곡의 산자락과 바람과 구름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고 자연과 어울리는 특성을 지닌다.

각지고 모난 데 없는 우리의 옹기문화에는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선인들의 심성과 정서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러한 전통문화는 빛을 잃고 사라져 간다.

시멘트 밀림 속에서 자동차가 뿜어내는 매연을 마시며 매일처럼 대하게 되는 보도 매체에서는 서울 하늘을 덮은 스모그 만큼이나 우울한 소식뿐이다. 중학생들이 포르노 영화를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거리로 내쫓고, 어린이 유괴살인이 자행되는가 하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구는 거액의 뇌물을 먹고 누구는 또 다른 나쁜 짓을 했다는….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아 허겁지겁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바탕을 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 자연을 훼손하고 잃어버린 데서 오는 문화결핍 증후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